

서효인의 '소설처럼'



오늘은 정하게 살게 해줘요

-고명재 산문 '너무 보고플 땐 눈이 온다'

누구나 자신의 채널과 목소리를 갖는 시대, 누구나 말할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으며 영상을 남기는 시대, 그것을 노출하기 위해 더빠르고 자극적인 무언가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세상 보드랍고 또한 절실한 감각의 시집 '우리가 키스할 때 눈을 감는 건'을 출간한 바 있는 시인은 이번 책에서 그 감각을 부러움을 그릇을 정교하고 미려하게 마련했다.

강색 같은 이름도 갖지 못했다. 흰데 희지 아니하고 검은데 검지 아니하다. 내게는 목표의 먹갈치가 사는 내 내 그러한 것이었는데, 시인도 갈치에 대해 짧게 쓴다.

어떤 글귀는 아름다운 시를 준비하는 메모처럼 보이기도 한다. 눈사람을 두고 시인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하여, 언젠대 사라져버릴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부르기로 했다."

차지 않을 수 있다. 눈사람에 나뭇가지라도 하나 쥐여 줄 수 있다. 그 생각이 모이고 쌓여 한 편의 시가 될 것 또한 자명하다.

가난한 기억은 지워 버리고 싶기 마련이지만, 어떤 가난은 몸과 마음에 울퉁이 남아 그의 버팀목이 되고는 한다. '가루약'에서 시작한 책은 '흰 티'로 끝날 때까지 가난한 시절, 아픈 가족, 사랑하는 사람이 반복해 등장한다.

의료칼럼



이두영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진료과장

대상 포진

여러 개의 물집이 무리를 지어 나타나게 된다. 수포는 10~14일 동안 변화하는데 고름이 차면서 탁해지다가 딱지로 변하게 된다. 접촉 등에 의해 물집이 터지면 궤양이 형성될 수 있고 2차 세균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대상 포진 후에는 신경통으로 이어지거나 발생 부위에 따라 눈에 발생하면 시력 장애나 각막염 등을, 얼굴에 발생하면 안면 신경 마비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대상 포진 예방 접종은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 빈도가

높기 때문에, 만 50세 이상 성인에게 접종을 권장한다. 접종은 대상 포진 발생률을 감소시키며 또 걸렸더라도 증상이나 대상 포진 후유증인 신경통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대상 포진 치료는 항바이러스제로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하며 지속 기간을 단축시키고, 아시클로비르 등의 항바이러스제 등으로 초기 병변 발생 후 72시간 내에 치료를 시작하면 효과적이다.

대상 포진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금연, 절주 및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면역력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기고

천일염 예찬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예전 우리의 일상에서도 소금과 관련된 일화들이 많았다. 옛날 교통이 불편할 때 소금 장수가 지계에 소금을 가득 지고 이 마을 저 마을로 팔다 다닌 이야기,

또한 새벽에 재수가 없다고 생각되는 고객이 방문할 때는 가게 주인은 소금을 뿌려서 액땀을 하곤 했다. 뿐만 아니라 시골의 전통적인 부엌(정제)의 부뚜막에는 소금, 장, 막걸리로 만든 식초가 항상 비치되었던 기억도 난다.

소금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식재료 중의 하나일 것이다. 더욱이 쌀과 김치가 주식인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더욱 더 그렇다. 모든 김치에는 절김이 필요로 하는데 절김을 염장하거나 생선에 간을 위해서는 반드시 소금이라는 매개체가 필요했던 것이다.

남도는 예로부터 모든 물산이 풍부한데, 특히 쌀과 소금 그리고 누에 생산이 많아 식성주에 꼭 필요한 삼백(白)의 고장임에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 전국 생산량의 80~90%가 생산되었으며 소금 염(鹽)자가 들어간 지명도 많다.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그야말로 온 세계가 시끄럽다. 특히나 지정학적으로 가장 가까이 인접한 우리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는 형국이며, 원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다소 부족한 국민들은 안전과 건강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와중에서 전국 생산량의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는 천일염이 일반 가정은 물론, 대량 소비처에서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급기야 정부에서는 비축된 2022년산 천일염 400톤을 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방출하였지만 실소비자에게는 아직도 부족한 듯 보인다.

신안군의 생산 이력제 인증 스티커 발부와 함께 장마가 끝난 후 신안군 관내 여러 농협의 2023년산 햇소금이 시중에 방출되면 품귀 현상이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지역에서 질 좋은 천일염이 다량 생산되는 것은 축복으로, 보다 슬기로운 식생활이 되길 소망한다.



박안수 말뚝이카데미 원장·경제학박사

흔히들 세상에서 귀한 금(金) 세 가치를 현금(Money), 소금(Salt), 지금(Present)이라고들 이야기한다.

'소금'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동양에서는 소금 염(鹽)인데, 이 소금 염(鹽)자를 풀이해 보면 신하(臣)가 소금 결정체인 소금 로(鹵)를 그릇(皿)에 담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금은 국가 관리, 즉 소금 전매제를 의미한다.

소금에서 유래된 단어는 많다. 지금의 급여인 샬러리(Salary)는 소금으로 지급되던 봉급을 말하며, 솔저(Soldier)는 소금으로 급여를 받던 병사를, 살루스(Salus)는 그리스 신화의 여신으로 소금이 건강에 꼭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용도 변경 특혜' 공무원들이 자문했다니

광주 광산구가 전직 광주시장 아들 소유 소촌농공단지 토지에 대해 용도 변경을 최종 승인하는 과정에서 구성된 자문위원회 위원 대다수가 내부자인 구청 공무원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광주시와 광산구,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광산구는 지난해 6월 광주시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가 24개의 조건을 달아 통과시킨 전 광주시장 아들 소유의 소촌산단 토지(4500㎡) 용도 변경안을 전달 받고, 승인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하겠다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한데 이 과정에서 광산구는 여덟 명을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배치하고, 민간 전문가는 한 명만 참여시켰다. 자문위는 지난 4월 4일 용도 변경 승인 고시 직전 한 달여간 활동했고, 광산구는 이들의 의견을 근거로 용도 변경을 최종 승인했다.

일부가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지만 아마 저도 무시했다고 한다. 토지 소유자인 사업자 측이 내놓은 주차장 조성과 화장실 개방 등은 스마트 정비 공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지 '공익성 실현'과는 관련 없으며, 해당 토지의 용도 변경을 승인하면 산단 내 지원 시설 면적 비중이 규정을 초과한다는 지적 등이 그것이다.

행정에 대한 자문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꾸리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도 공무원들을 집중 배치하고 민간 전문가를 단 한 명만 구색 맞추듯 포함시켜 '셀프 자문'이 이뤄지도록 한 것은 저의가 의심스럽다. 광산구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자문위 회의 내용부터 즉각 공개해야 한다. 특히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공무원 중

청년층 울리는 대포 통장 범죄 엄단해야

대포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는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포 통장이 가난한 청년층을 파고 들어 심각성이 더하고 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그제 대포 통장 유통 일당을 붙잡고 보니 이들이 유통시킨 대포 통장을 통해 1조 원이 넘는 범죄 수익금이 오고 간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두 개의 유통 법인을 만들어 청년층 명의로 117개의 대포 통장을 개설한 뒤 보이스 피싱과 사이버 도박 조직에 통장을 빌려주고 수수료로 20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며칠 전에는 대포 통장을 보이스 피싱 범죄 조직에 판매한 후 통장에 입금된 범죄 수익금을 빼돌린 일당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노숙자들을 상대로 명의를 빌려 대포 통장을 만드는 것은 옛날 방식이다. 요즘에는 보이스 피싱과 사이버 도박 범죄가 급

증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대포 통장이 유통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대포 통장 개설 대상도 청년층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급전이 필요하거나 경제력이 없는 가난한 청년들이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통장 하나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고 있다.

문제는 "월급을 줘야 하니 통장을 달라"거나 "대출 시 신용 등급을 올리려면 거래 내역이 필요하니 통장을 달라"는 식의 사기에 넘어가는 청년층도 적지 않다. 우선은 타인이 통장을 달라거나 할 경우에는 대포 통장 범죄를 의심해 봐야 한다. 명의를 빌려줘도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대포 통장 유통 조직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통 조직을 근절한다면 대포 통장을 이용한 보이스 피싱 등 범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다.

無等鼓

"꽃잎 끝에 달려 있는 작은 이슬방울들 / 빗줄기 이들을 찾아와서 음 어데로 데려갈까/ 바람이 너는 알고 있나/ 비야 네가 알고 있나/(중략) 엄마 잃고 다리도 없는 가엾은 작은 새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면 음 어데로 가야 할까"

영화 엔딩 타이틀이 올라가며 흐르는 노래를 마음 속으로 조용히 따라 불렀다. 16세기 스코틀랜드 노래 '매리 해밀턴'(Mary Hamilton)이 원곡으로, 양희은이 불러 잘 알려진 '아름다운 것들' 수도 없이 듣고 불렀지만 이

처럼 영화는 잔잔히 이야기를 들려준다. 봄철에 호수에서 출발한 도요새는 고도 4000m 이상을 2주 동안 쉼 없이 날아와 중간 기착지인 서해안 갯벌에 도착한다. 1만km를 나는 대장정 후 갯벌에 펼쳐지는 10만 마리 도요새의 장관은 경이롭다. 영화를 보며 관객들은 말라버린 갯벌에서 물이 들어오길 한없이 기다리다 절망하고 마는 조개의 마을을 헤아리고, 뒤뚱거리며 막 걸음마를 떤 귀여운 쇠제비갈매기 아기 새의 성장도 기원하게 된다.

영화는 새만금 사업 반대를 위해 '삼보일배'를 했던 문규현 신부와 수심 동안 매달 조사를 하는 새만금 시민 생태조사단, "이런 영화를 만들어줘서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리고 함께 볼 것을 권유하는 관람객들의 마음까지 어우러져 완성됐다.

수라 갯벌

노래와 함께 출연자들 이름이 하나둘 나열된다. 더불어 검은 머리갈매기, 저어새, 고니, 흰발농게 등 새와 조개의 이름도 자막으로 흐른다. 아, 맞다. 이들이 바로 영화의 주인공이다. 황윤 감독의 다큐멘터리 '수라'는 새만금의 마지막 갯벌인 수라 갯벌의 모습과 이를 지켜가는 사람들을 촬영한 기록이다. '근래에 본 영화 중 손꼽히게 아름다운 영화'(임순례 감독), '날카로운 논쟁이나 무거운 질문 대신 천천히 부드럽게 갯벌의 사계를 보여 준다'(김탁환 소설가)는 말

영화는 새만금 사업 반대를 위해 '삼보일배'를 했던 문규현 신부와 수심 동안 매달 조사를 하는 새만금 시민 생태조사단, "이런 영화를 만들어줘서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리고 함께 볼 것을 권유하는 관람객들의 마음까지 어우러져 완성됐다.

환경 보호나 생태계 보존을 애써 강조하지 않아도 갯벌에서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고, 또 생을 마감하는 새와 조개를 보며 자연의 경이로움과 인간의 오만을 떠올리는 것, '수라'가 들려주는 이야기다. /김미은 여론매체부장 mekim@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주간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전남본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